

가나안 이야기

약속의 땅을 향한 행복한 동행



‘코로나 2차 확산과 이스라엘 사회’

요즘 이스라엘에서는 매일 1,000명 전후의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고 있으며 많을 때는 2,000명 가량 나올 때도 있습니다. 8월 9일 현재 누적 확진자 수는 83,540명인데 인구로 보나 나라의 크기로 보나 정말 많은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더해 코로나로 인한 실업률은 약 20% 가량 된다고 합니다. 이렇다보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 가운데 요즘 반정부 시위가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사역 현장은 물론 사역자들에게도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많은 사역자들이 한국으로 철수 혹은 이른 안식년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재정적 어려움 때문입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 후원이 대폭 줄고 현장에 방문하던 팀들마저 중단 되었기에 사역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습니다. 이로 인한 어려움들로 고민 끝에 철수 내지는 이른 안식년을 선택하는 추세입니다. 이렇듯 많은 사역자들이 현재 한국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으로선 당장 사역을 진행하고 못하고의 문제 보다는 현장에서 끝까지 버티고 견뎌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저희 가정과 현장에 남아 있는 사역자들이 지금의 이 위기를 잘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사역 이야기’

노인센터는 7월부터 다시 열었고 대부분 기저질환이 있으신 어르신들이라 특별히 더 주의를 기울이며 봉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바이러스에 감염된 분도 없고 각종 모임 일정도 무리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 여파로 베두윈마을 지체들의 삶과 생활에도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모두 건강하게 또 안전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브라힘에게 물어보니 보건마스크가 없다고 해서 이번 방문간에는 집집마다 보건마스크를 구입해서 전달하려고 합니다. 속히 일상으로의 복귀와 예전 같이 아이들을 만나 거리두지 않고 편하게 교제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유대인교회(‘케힐랏트 하나하르’)는 한동안 Zoom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7월 부터는 두그룹으로 나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모이는 예배의 이점은 작지만 더 풍성하고 친밀한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8월 13-15일(2박 3일)까지 이스라엘 남부지역으로 연합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그동안 제한되었던 사역의 장을 다시 열어 또다른 활로를 개척하고자 현장 사역자들과 함께 이번 여행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비대면 시대 맞춤 전도로써 이번 여행은 이스라엘 주요 국도 중 3번, 40번 그리고 90번 선상에 위치한 정류장을 중심으로 전도 책자와 보건 마스크를 비치하고 만나는 이들에게 기회가 되는 대로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번 여행 가운데 있을 만남과 이동 간 안전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다비드&시르엘 결혼식

요압 아저씨 둘째 딸 시르엘의 결혼식 참석



단아의 치과 방문기

한 동역자의 소개로 믿는 의료진을 만나 기다리던 단아의 이빨 치료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베두윈 마을 방문

무슬림들의 명절 중 하나인, '아드 아드하' 에 마을을 방문하고 왔습니다.



노인센터 모임

철저한 방역과 정부의 지침을 따르며 계속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족 살아가는 이야기’

살롬! 갈릴리에서 문안드립니다. 평안하시지요?

한국은 코로나에 이어 오랜 장마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가정과 교회 그리고 사업터 위에 피해가 없으시길 바라며 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은 건기를 맞고 있기 때문에 10월 말, 11월 초까지는 비를 구경할 수 없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평균 35도) 가운데 외출 한번 하러 치면 마스크 안으로 차오르는 열기에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요즘 같은 시기에 활동할 수 있다는 그 자체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기도해주신 덕분에 아이들 ‘농가진’은 다 나았고 또 단아의 이빨치료도 잘 받았 습니다. 지금은 가족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모두가 염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신 덕분에입니다. 아내와 아이들은 코로나 사태 이 후 거의 6개월 간 바깥 활동을 못하다가 요즘은 마을 산책도 하고 바깥 활동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한동안 집에만 머물 러 있었는데도 아이들이 크게 답답해 하지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네 남매가 함께 모여 지내다보니 서로 의지하고 우애(友愛)하며 나름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근래에는 현지 교회 지체들 가운데 가정 방문과 교제를 통해 더욱 친밀한 교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교제와 나눔의 시간을 통하여 신앙의 배 경과 삶을 나누고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의 지체됨의 연합과 은혜를 나눌 수 있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한국도 또 다른 지역도 예전처럼 다함께 모여 자유롭게 교제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찾아오길 기도합니다. 긴 장마의 끝자락에서 늘 안전과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며 남은 이번 한 달도 주님 안에서 평안 하시길 기도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 기도제목 」



- 1) 가족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이 시기를 보내면서 더욱 주님과 영적 친밀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 2)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다가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나눌 수 있도록(지혜와 안전을 위해)
- 3) 코로나 19 재확산(1일 평균 1천 500명)으로부터 노인센터, 현지교회, 베두원 마을 지체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도록
- 4) 아이들의 배움의 과정(홈스쿨)에 지혜와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 5) 8월 13-15일(2박 3일) 진행될 연합 전도 여행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고 모두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Motto : ‘ 무릎으로 살아가며 성령에 민감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가라하면 가고 하라하면 행한다. ’

「 후원정보 」

- 일반헌금: 다비드/하다스(담희,단아,도하,다온)
- KEB 하나은행 : 181-04-01159-983
- 예금주: 침*해*선(정재석) / TEL : 02-3775-4471
- 목적헌금: 코리엘
- KEB 하나은행 : 990-007955-919
- 예금주: 침*해*선(정재석) / TEL : 02-3775-4471

- 1) 재정담당 : 최은섭 (010-5334-7856),
E-MAIL: 0903ces@naver.com
- 2) 문서담당 : 박은성 (010-3745-2025),
E-MAIL: mindlle-1@hanmail.net

「 연락처 」

■ 현지주소
JAESUK JUNG
P.O.Box 363, Poriyya Illit, Galil Tachton, 1520800, Israel
Phone number: +972(0)586623513

- 인터넷 전화: +82 (0)70-86320432
- E-MAIL: korielpro@gmail.com
- 카카오톡 ID: magendavid77
- QR코드:



